

떠나간 국악인들 예술혼 기리며 ‘하늘과 땅을 잇다’

떠나간 호남 전통예술인 150명의 넋을 기리는 신 명나는 살풀이춤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이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전통예술의 원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국악계 원로들의 예술혼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다.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무동(舞童)으로 불린 명무 고(故) 김전홍, 판소리의 거장 고(故) 박동진, 호남검무의 계승자고(故) 한진옥 등을 비롯해 명창 임방울, 김창조, 이매방 등 남도 출신 국악인 150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되새긴다.

주제는 ‘하늘과 땅을 잇다’. 흰 수건이 휘날리는 살풀이춤이 눈을 감은 명인·명무의 혼과 그 뜻을 이어가는 후대의 예술

김청만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교법 보유자

‘제113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24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임방울 등 ‘남도 국악인’ 150인 추모…국악인 오정해 해설

술혼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는 의미다. 국악인이자 영화배우인 오정해의 해설이 곁들여진다.

관객들은 전통 장단 위에 펼쳐지는 한서린 소리와 몸짓, 그 속에 담긴 서정과 깊이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교법 보유자 김청만 명인의 ‘남도시나위 합주’로 시작된다. 시나위는 무속에 뿌리를 둔 음악으로, 여러 악기가 주고받으며 어우러지는 전통 합주다. 특히 남도시나위는 보다 질펀하고 서정적인 색채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 원완철, 아쟁 서정호 연주자 등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전통 무대가 이어진다. 정현숙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향발무’, 박야림 대전살풀이춤 이수자의 ‘초립동’,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한민정의 ‘강선영류 태평’ 무, 허순선 광주대 명예교수의 ‘수건입춤’ 등이 차례로 펼쳐진다.

광주시 무형유산 ‘동초제 흥보가’ 보유자인 김선이 명창은 박시양 고수의 장단에 맞춰 ‘심청가’의 한 대목을 선보이며 판소리의 진면목을 들려준

다. 공연 해설을 맡은 오정해 씨는 깊은 울림을 담은 ‘상주아리랑’과 ‘홀로아리랑’을 관객과 함께 나누며 무대의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이어 김지원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고요하면서도 절절한 살풀이춤으로 선인들의 넋을 기리는 무대를 펼친다.

공연의 마지막은 채수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남도민요 ‘육자배기’가 장식한다. 애절한 선율과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조화를 이루는 이 곡은 전라도 음악 특유의 서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사랑과 이별, 그리움의 감정을 관객에게 전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명인명무전’은 전통예술의 원형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1990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예술 브랜드 공연이다. 남도 출신 국악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예술인들을 총망라하며, 광주·서울 등 국내 도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70여 곳에서 공연을 펼쳤다. 지금까지 3500여 명의 전통예술인이 참여한



판소리 심청가 김선이



살풀이춤 김지원

이 공연은 전통예술의 정수를 전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해왔다.

공연을 기획한 박동국 대표는 “고향 함평에서 여성국극을 접한 것을 계기로 전통예술에 매료된 이후, 이 무대를 30년 넘게 지켜오고 있다”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뿐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히 전통예술을 지켜온 예술인들까지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이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국악을 배우는 후배들에게는 명인의 깊은 예술세계를 직접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와 음악, 철학 메시지·대화 어우러진 ‘인문학 살롱’

21~27일 카페 필로소피아… ‘4월의 강을 건너며’ 주제

시낭송, 철학 메시지, 청중과의 대화, 첼로 연주, 클래식 기타, 미니 그림전…

시와 음악, 철학 메시지가 어우러지는 ‘인문학 살롱’이 펼쳐진다.

카페 필로소피아(대표 성진기)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오후 7시) ‘4월의 강을 건너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제 ‘4월의 강을 건너며’는 T.S 엘리엇의 ‘4월은 잔인한 달’라는 표현과 조응하는 것으로 시와 음악, 철학을 매개로 ‘도전에 응전하고 잔혹을 신비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첫 일정은 21일 최경천 아나운서의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낭송하는 것으로 연다. 이어 이상열 광주지교원장의 첼로연주(오펜바흐 ‘눈물’, 신귀복 ‘얼굴’)가 펼쳐지며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인생 인문학적 사유가 될 할까’를 주제로 청중과의 대화를 한다.

22일에는 김정희 시인이 타고르 ‘기도’를 낭송하고 박종 조선훈대 명예교수가 노래(박화목 ‘보리밭’, 최영섭 ‘압해도’)를 하며 성진기 명예교수가 ‘니체의 능동적 허무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23일에는 광주의 시인 동아리 ‘동행’이 초대해 함께한다. 박종근이 문병란 ‘희망가’를, 박연정이 정두리 ‘그대’, 전경희가 김종 ‘광주 가는 길’을 낭송한다.

박창수 교수가 ‘그대’를 기타연주하고 신영미 원

장은 ‘봄날은 간다’를 아코디언 연주할 예정이다.

이해인 시인의 작품을 낭송하는 시간도 있다. 24일에는 심재한 전남대 명예교수가 이해인 ‘봄 인사’를 읊으며 채정 작가가 기타연주(조동익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르르 때’, 김윤아 ‘봄이 오면’)를 한다. 김정길(광주평화연대)이 ‘다시평화를 부르짖는 까닭에 대해’를 강연한다.

25일에는 최정환이 박노해 ‘다시’를 낭송하며 김홍석이 ‘4월의 노래’, ‘You Raise Me Up’을 선사하며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가 ‘한국미술사학자가 본 반 고흐’를 소개한다.

26일에는 김진숙 한국 미용명장이 정호승 ‘봄길’을 선사하며 서만재 전 한국교원대 교수가 클래식기타(‘아랑훼즈협주곡 2악장, 전주곡 1번 에도르 빌라로보스’)를 들려준다. 문석우 조선대 명예교수는 ‘춧불의 미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 시간은 윤동주의 시를 듣는 시간으로 펼쳐진다. 강동완 조선대 명예교수가 윤동주 ‘참회록’을 들려주며 김병규 전 동구 행복재단 이사장은 기타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임영웅), ‘The



이전에 진행했던 카페 필로소피아 행사 장면. <카페 필로소피아 제공>

Boxer’ (사이몬 & 가펄클)을 연주한다.

끝나는 시간은 양희은의 ‘하얀 목련’을 합창하며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니 그림전도 예정돼 있다. 김성숙, 김평중, 김해성, 김형정, 노의웅, 서현호, 송필용, 이근표, 이보애, 한희원, 황순철, 채종기, 안판중, 오병섭, 김옥렬(사진)이 관객들을 찾아가나.

성진기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와 음악 그리고 철학 메시지를 부활해 나약해진 삶의 심지에 용기의 불을 댕길 것”이라며 “삶의 튼튼한 근육을 단련하고 삶의 고귀한 의미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짬뽕’이 서울시 성북구 여행자극장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한달간 무대에 오른다. <극단산 제공>

중국집에 펼쳐진 광주의 봄…블랙코미디 ‘짬뽕’

전문예술단체 극단산, 5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 여행자극장

민주주의를 지켜낸 2025년의 봄, 1980년 5월 봄날의 광주가 다시 찾아온다. 평범한 오늘을 지키고자한 시민들의 자치된 뜨거운 이야기가 관객들을 만난다.

전문예술단체 극단산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성북구 여행자극장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연극 ‘짬뽕’을 공연한다. 지난 2004년 초연된 이 작품은 블랙코미디라는 형식을 통해 무겁고 아픈 역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작품은 1980년 5월 17일, 광주의 한 중국집 ‘춘래원’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배달원 만식은 평소처럼 음식 배달을 나서다 군인과 마주치고, 군인은 국가를 앞세워 공짜 음식을 요구한다. 실랑이 끝에 울려 퍼지는 총성, 그리고 이어진 뉴스 속 ‘폭도’의 등장. 식당 식구들은 이 모든 사단이 ‘만식과 군인의 짬뽕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 착각하고, 가게와 만식을 지키기 위해 좌충우돌 분투한다.

오해와 헤프닝이 얹히는 과정을 통해, 연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이 겪은 혼란과 현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열리는 올해 공연은,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작과 연출은 윤정환 극단산 대표가 맡았으며, 배우 김원해, 최재섭, 허동원, 김화영 등이 출연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윤정환 대표는 “‘짬뽕’은 198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다”며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 단순히 5·18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4만원, 네이버·인터파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20회 지리산문학상 공모전’ 6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지리산은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영혼이 깃든 영산이었다. 현대사의 아픔과 상흔을 간직한 지리산은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제20회 지리산문학상 공모전(상금 1000만원)이 펼쳐진다.

지리산문화회와 계간 ‘상상인’이 주최하고 지리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기성시인(기 수상자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시 50편 이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시, 시집 발간 형식(가제, 약력, 본문 1~4

부 편성)으로 원고를 접수해야 한다. 7월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지리산문학제 축제(경남 함양군 함양 예술회관) 기간에 개최될 예정이다.

발표는 계간 ‘상상인’ 가을호에 게재되며 수상 시집은 ‘상상인’ 기획시선으로 발간된다.

한편 ‘상상인’ 발행인 진혜진 시인은 “올해로 20회를 맞는 지리산문학상은 그동안 역량있는 시인들을 발굴, 소개해왔다”며 “지리산처럼 높고 영명한 문학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에 문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누구에게나 있었을 ‘빛나는 순간’

이준성 개인전. 25일까지 갤러리 오늘

따스하고 화사한 봄기운에 대지가 점차 푸르러지고 있다. 벚꽃과 개나리가 핀 거리는 생기가 돌고 예쁘기 그지없다. 어수선한 시국이 정리가 되면 사람들은 움츠린 어깨를 펴고 봄꽃 나들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은 봄이면 계절의 영향 때문인지 빛나는 순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지천에 피어난 꽃들과 못 생명들이 안부처럼 전해오는 화양연화와 같은 순간을 그리게 된다.

이준성 작가의 개인전 ‘AGAIN 빛나는 순간’은 경이로운 자연의 힘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갤러리 오늘에서 오는 25일까지 펼쳐지는 전시는 누구에게나 있었을 ‘빛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상춘-삼매경’은 흐드러지게 핀 꽃 언덕을 따라 사람들이 걷고 있는 장면을 담았다. 아직은 한기가 남아 상춘객들은 다소 두터운 옷 차림이지만 표정

만큼은 밝고 활기차다. 봄이 주는 힘이다.

수채화가 주는 맑은 감성과 4월이 주는 정감은 주제인 ‘빛나는 순간’으로 전이된다. 그런데 왜 작가는 ‘AGAIN 빛나는 순간’으로 규정했을까. 젊은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의미인 듯하다. 일상에 지쳐, 밥벌이에 지쳐 차분히 봄날의 서정을 느낄 수 없었던 이들에게 한번쯤 ‘빛나는 순간’으로 다시 떠나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한편 이준성 작가는 “휴식의 여감-바람, 별 그리고 바다의 어울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그 빛나는 순간의 활력과 감동을 함께, 그리고 길게 간직



‘산수유마를 풍경’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인사아트센터 개인전을 비롯해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전 등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